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여론과 정치적 결정에 대한 단상: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의 원리 위에서

A Preliminary Study for Public Opinion Against Yemeni Refugee and the Political Decision: Focusing on Augustine’s Thought about Principle of Love

이성욱

한라대학교 광고영상미디어학과

Sung Wook Lee(lesw@halla.ac.kr)

요약

이 글은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여론의 추이와 그에 따른 정치적 상황에 주목하면서 시작되었다. 제주도 난민 수용 반대 여론은 난민법의 수정 또는 폐지까지 요구한다. 예멘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입장은 치안과 안전, 문화 마찰, 경제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지만 전향적인 사회가 견지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 진리적인 가치에는 반한다. 정치적 결정권자가 여론은 살피는 일은 자연스럽고 또한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다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정의롭지 않은 여론은 정치적 결정의 토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본 논문은 그러한 이유와 근거로 여론의 형성과정과 관련 개념들의 그림자를 살펴볼 것이고, 반대로 공동체적 결정이 참고할 수 있는 가치로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 개념과 원리를 검토하고자 한다. 갈등은 불안전과 균열을 초래한다. 공통감이 없으면 균열은 봉합되지 않는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갈등상태가 해소되어야 함을 과제로 삼고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해안을 얻고자 한다.

■ 중심어 : | 여론 | 아우구스티누스 | 사랑 | 정의 | 난민 |

Abstract

This study begins with focus on the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views on embracing Yemeni refugees in Jeju. The public opinion is demanding amendment or even abolition of the Refugee Act. The argument opposing Yemeni refugees is persuasive enough in terms of public order and safety, cultural conflicts and economic interests, but it is going against the universal and authentic values that must be pursued by a forward-looking society. It is natural that the power exerting political discretion keeps an eye on public opinion. However, no matter how many people express it, unjustified public opinion must not be a foundation for political decision. This study will examine the shadows of public opinion and related concepts for those reasons, and review Augustine’s concept of ‘love’ as a value to refer to in making a communal decision. Conflicts lead to insecurity and rift. Without *sensus communis* (common sense), the rift will not be healed. This study raises the need to resolve such conflicting state and seeks insight from Augustine.

■ keyword : | Public opinion | Aurelius Augustinus | Love | Justice | Refugee |

* 본 논문은 한라대학교의 연구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접수일자 : 2018년 08월 10일

수정일자 : 2018년 09월 12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9월 21일

교신저자 : 이성욱, e-mail : lesw@halla.ac.kr

I. 서론

1. 관찰

2018년 여름, 제주도의 예멘 난민 수용문제가 국내의 청년실업 문제와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는 이슬람테러와 맞물려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2018년 6월 13일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등을 내용으로 한 난민 수용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2018년 7월 13일에는 청원인원이 70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행된 이래 역대 최다인원이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2018년 6월 21일과 7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의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1].

전국 19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한 2차 여론조사 결과는,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53.4%, ‘찬성’이 37.4%, ‘모른다’는 9.2%로 나타났다. 이는 6월 21일의 1차 조사결과와 비교해 반대는 4.3%포인트 많아지고, 찬성은 1.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주 사이에 반대쪽으로 보다 기운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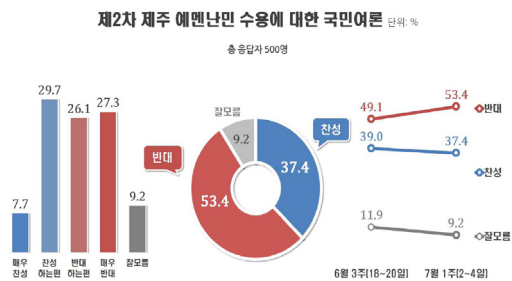


그림 1. 제2차 제주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결과 (2018.7.4. 리얼미터 보고서 인용)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난민 신청자들이 순수한 난민이 아닌 ‘브로커’를 통해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온 ‘가짜 난민’ 내지는 테러리스트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과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세운다. 반면, 찬성하는 입장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핵과 남북문제는 장기전으로 가고,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언론도 난민문제에 초점을 맞춰 난민 수용 반대 여론 형성에 작지 않은 역할을 했다.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문제가 불거진 이후 이른바 보수·우파를 대변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난민 수용 반대 응답이 11.7% 포인트 높았던 1차 여론조사 결과와 16% 포인트 반대 응답이 높았던 2차 여론조사 결과 모두를 보도했다. 그러나 2018년 6월 29일, <난민인권센터>가 성명에서 발표한 “난민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난민들에 대한 처우, 난민들의 생계와 의료 지원에 대한 입장, 신속한 심사뿐만 아니라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는 방안, 이의신청단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방안 등 난민의 보호와 처우 개선[2]” 등의 문제 제기와 2018년 7월 2일, <아태난민네트워크>가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발표한 성명의 내용, “난민 추방 취지의 청와대 청원 캠페인에 드러난 깊은 적대감, 전국적인 외국인 혐오 정서에 근거한 반대운동과 극단주의자들의 가짜 뉴스 전파, 인종차별 유발, 난민에 대한 대중의 공포 조장, 근거 없는 공포 캠페인[3]” 등의 문제 제기를 기사로 취급한 언론사는 ‘제주의 소리’ 등 소규모의 인터넷 신문 소수에 그쳤다. 대중의 여론과 여론 확산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다수의 언론이 예멘 난민 수용에 우호적이지 않다.

2. 문제제기와 연구방법

예멘 난민 수용 거부 국민청원이 시작된 지 5일 만에 청원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서자 정부는 법무부를 통해 ‘제주도 예멘인 난민 신청 관련 조치 상황 및 향후 계획’이란 제하의 대국민 브리핑을 발표했다. 골자는 ‘남용적 난민신청 제한을 위한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난민 심판원을 신설해 난민 신청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축소’하며, ‘재외공관 비자심사 강화’ 등이었다. 이후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한 논쟁은 배우 정우성의 개입 등으로 사회전반에서 더욱 가열되었고, 법무부의 1차 대책 발표 보름 만인 2018년 7월 4일, 청와대는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난민 수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법무부의 대책과 다르지 않음을 재차 확인하였다. 2018년 7월 11일

에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주최로 '난민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하의 국민토론회가 열렸다[4].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도 참석해 청와대 난민 수용 반대 국민청원이 마무리 되는대로 조속하고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등 민감한 대응의 모습을 보였다. 현대국가에서 정치적 입장과 정책을 결정하는 데 여론을 민감하게 살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특히 촛불혁명과 청년들의 열광적인 지지와 중도의 편향적 지지로 탄생한 현 정부로서 지지층의 난민 수용 반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은 성급한 느낌이 드는 정부의 대책 발표와 난민문제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국제기준에 맞게 제정된 난민법의 인도주의적 차원보다 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 또는 일자리 경쟁자로 바라보는 반대 여론의 추이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만일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여론이 잘못되고 왜곡된 정보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또는 여론이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전적으로 미디어에 의존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보고 무엇을 볼 것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다수의 힘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다수의 의견은 힘을 얻어 이른바 여론이 되기 쉽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것도 촛불로 표현된 다수의 힘이었다. 그러나 대중은 진지전능하지 않고,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늘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합당한 이치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여론이 바른 의견으로서 정론(正論)이 될 수 없다면 공통원리로서의 보편적 가치, 참된 이치로서의 진리적 가치에도 부합되기 어렵다.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의 함정이 여기에 있다. 아무리 다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여론은 정치적 결정의 토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문제 1. 여론과 상호작용 하는 정치적 결정이 유의해야 할 여론의 부정적 면모들은 어떻게 파악될 수 있는가?

연구문제 2. 인권 차원의 예멘 난민 수용과 반대 여론 사이에서 사리에 맞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원적인 원리가 존재하는가?

필자는 연구문제 1에 대한 논의로 여론의 부정적인 면모들을 고찰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서 추상화될 수 없고, 확정될 수 없으며 객관화되지 않는 여론의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2에 대한 논의는 예멘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한 정치적 결정이 참고하고 견지할만한 근원적인 원리로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 개념과 그의 사상의 기저가 되는 성경 텍스트를 살펴보고, 아우구스티누스가 깊은 통찰과 광대한 마음으로 논의한 '사랑'의 원리를 분석적 관점보다는 수사적 독해를 통해 현실문제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의 원리가 예멘 난민 수용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하나'의 규범적 메타포를 제시하는 시론적 성격과 한계를 갖는다.

II. 문헌연구

1. 여론의 정의와 형성과정

글로벌 네트워크·모바일로 대표되는 21세기 대중사회의 진전은 여론의 본질적 기반을 바꾸고 있다. 스마트 미디어와 그에 탑재된 소셜 기능들은 SNS 이용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으며, SNS가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도 증대되고 있다[5].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기술적 진보와 남녀·연령 간 정치적 평등, 개인주의, 경제제도의 발전은 정치로 하여금 대중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더욱더 중요한 사안으로 만들게 했다. 이러한 바탕 위에 던져진 “민주주의는 여론정치다”라는 명제는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그러나 여론을 이해하고 규명하는 일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개인이나 사회에 대한 어떤 의견 중에서 여러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공통된 의견”이라는 일반적 정의는 현대사회에서 작동하는 여론의 다양한 양상을 고려하면 충분치 않다. 여론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여론에 대한 정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여론 형성과정의 이해이다. 우선 여론형성의 기본 전제는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이며, 다수가 관심을 갖는 특정 사안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이 특정 사안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반드시 여론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한 사안에 대해서도 여론은 분산되며, 합의되기도 하고 또 대립되기도 한다.

수잔 허브스트 Susan Herbst는 여론을 ‘개인적 차원의 의견’과 개인의 의견이 공적인 토론을 거쳐 집합적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문맥’으로 구분하였다[6]. 개인적 차원의 의견이 사회적 문맥으로 조직화되는 과정에는 각기 다른 정보들과, 집단적인 힘이 복잡하게 얽힌다. 각 개인이 가까운 소집단 내에서 의견분포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과정, 특정한 여론을 지지하는 정당이나 이익 집합체에 의해 주도적으로 여론이 창도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미디어의 해석과 미디어에 의해 매개된 정보가 각 매개과정에서 다층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다양한 과정이 포함된다[6]. 여론은 상이한 몇몇 다수 의견의 중도적인 경향으로 종합되기도 한다. 그 외에 주류에 편입되지 못한 다수의 잉여들, 표상 이하의 차원에 있는 복수적 암시, 전염 또는 모방되는 다질적 ‘흐름들’에 대한 미시적인 이해도 필수적이다[7]. 주류 밖에 있는 다양하고 다질적인 의견들, 은하수처럼 퍼져 있는 미시세계들과 언표되지 않은 회색지대를 간과하면 핵심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는 현실세계에 살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말해준 것과 이야기, 미디어의 사진이나 설명 또는 해석된 세계에 살고 있다. 외적세계는 아무리 선의가 있다손 치더라도 너무 복잡해서 한 개인이 파악하기 어렵다[8]. 거기에 더해 이기적이고 이타적인 다양한 이해관계들, 집단 간 경쟁과 투쟁, 복수의 시점과 복잡한 상호작용 과정, 언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고려하면 여론에 대한 이해와 정의는 다층적이고 다면적일 수밖에 없다.

2. 군중과 공중

“별로 달갑지 않은 사람들조차 끌어들이어 집단적인 의사를 만드는 것을 만들어 내고 마는 군중이라는 존재를 처음 내 눈으로 본 경험에 어리둥절해 있었다.”

- 김승옥의 단편 <그와 나> 중에서

군중과 공중은 여론을 이해할 수 있는 선행 개념 중의 하나이다. 군중과 공중의 의미와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19세기 말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과 담론을 소환할 필요가 있다.

1982년 프랑스의 라루스 Larousse가 편찬한 『19세기 대백과 사전』에 따르면, 공중이라는 명사는 “일반적인 인민, 보편적인 시민”이나, “듣고 보고 판단하기 위해 모인 많은 수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당시 공중은 그저 다수의 시민을 의미하거나, 구경거리, 음악회, 회합, 시위 등에 참가할 요량으로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의미했다[9]. 관용적으로 군중과 공중은 구별되지 않았다.

1891년 이탈리아 로마의 젊은 법학도 스키피오 시켈레 Scipio Sighele는 그의 논문 『범죄군중』에서 군중이라는 단어에 전문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시켈레는 배심원단, 학술위원회, 정치집회 등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사람들은 혼자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군중이 그 구성요소인 개인과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에 따르면 군중은 언제나 개인보다 더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시켈레는 군중을 이해하기 위해 집단심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분야가 필요함을 역설했다[10]. 프랑스의 사회학자 이폴리트 텐 Hippolyte Taine은 12권으로 된 방대한 분량의 그의 저서 『현대 프랑스의 기원』에서 프랑스 대혁명을 조명하면서 군중과 인간 본성의 병리적인 측면에 주목한다. 프랑스 대혁명과 군중을 바라 본 그의 관점은 다음과 같다[10].

- ① 1789년은 혁명이라기보다는 정부와 사회의 해체를 나타냈다.
- ② 1789년은 거리와 의회 모두에서 자연발생적인 무정부 상태와 폭도의 지배를 초래하였다.
- ③ 그것은 또한 책임감 있는 시민들의 반감을 샀으며, 부적응자들과 선동가들을 날뛰게 하였다.
- ④ 자코뱅당의 권력 장악은 그러한 사람들을 반대하는 자에 대한 철저한 협박의 결과였다.

⑤ 결국, 비참함과 독재정치는 구체제 때보다 혁명정부에서 더 악화되었다.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 이후 일련의 혁명과 혁명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민중봉기와 노동자 파업은 지식인들에게 군중의 위협을 증가시켰다. ‘공중’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사람 중에 한 명인 가브리엘 타르드 Gabriel Tarde도 프랑스 대혁명의 인식 초기에는 봉기한 민중을 ‘범죄군중’으로 여긴 바 있다. 그는 군중을 자연발생적이고 일시적이며 열등한 유기체로 특징지우면서, 군중의 성질은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합으로 생각할 수 없고, 오히려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개인보다 못하다고 단언하였다[10]. 이러한 그의 군중관은 시켈레나 텐의 군중관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었다.

군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귀스타브 르 봉 Gustave Le Bon에 의해 새롭게 조명된다. 그는 동시대인들을 불안하게 한 군중현상에 주목하면서 『군중심리학』(1895)의 서론에 그가 관찰한 군중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범죄군중은 존재한다. 그렇지만 미덕을 지닌 군중, 영웅적인 군중 또 그 밖의 많은 군중도 존재한다. 군중의 범죄는 그들의 심리가 나타내는 하나의 특별한 경우일 뿐이다. 그러므로 한 개인의 정신구조를 그의 악행만을 기술해서는 알 수 없는 것처럼 군중의 범죄만으로는 그들의 정신구조를 알 수 없다.[11]”

르 봉은 군중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로 ‘암시’라는 개념을 언급한다. 즉 행동하는 군중 속에 뛰어난 개인은 군중으로부터 나오는 발산물에 의해서건 아니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이유 때문이건 간에 곧바로 특별한 상태에 빠지는 데, 이것이 최면과도 같은 ‘암시’라는 것이다[12]. ‘암시’는 군중과 개인이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

가브리엘 타르드는 프랑스 대혁명 후기로 오면서 군중에 대한 생각을 점차 긍정하는 쪽으로 바꾸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드레퓌스 사건이다. 타르

드는 드레퓌스 사건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드레퓌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반유대주의 신문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했다[10]. 대중신문의 여론형성은 그의 학문적 초점이 군중에서 공중으로 옮겨가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그는 미디어의 기술적 진보가 공중 등장에 촉매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타르드는 공중을 미래의 사회집단으로 설명하는데, 그에 따르면 군중은 물리적인 군집상태를 기반으로 하고, 공중은 어느 정도의 성숙함과 지적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정신적인 공동체이다. 즉 군중은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시간으로 제약되는 물리적인 집합체이고, 공중은 육체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정신적으로 결합된 분산된 개인들의 집합체이다[10]. 따라서 사람들은 한 번에 하나의 군중에만 속할 수 있고, 언제나 동시에 여러 공중에 속할 수 있다[9]. 군중과 공중에 대한 이러한 구분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군중의 지도자는 입에서 귀로의 암시, 즉 가까이에서의 암시를 행하기 때문에 그의 영향은 시공간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공중의 지도자는 멀리서의 암시를 행하기 때문에 그의 영향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10].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공중의 지도자는 시공간이 한정된 군중의 지도자보다 그의 타고난 재능의 여하에 따라 그의 영향력을 광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본다면, 공중은 사이버 공동체인 셈이다. 그들은 미디어를 매개로 정서를 나누고 공감하며 의제에 따라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군중이 지도자에 의해 창출될 수 있는 것처럼 기술적 공간의 지도자들 역시 공중을 구성하는 일에 관여하고 암시적인 외적 지도를 행사한다. 개인들의 공적 관여의 효능감이 커지는 이 기술적 공간에 여론을 주도하는 현대 지도자의 원형이 탄생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예를 2018년 상반기를 달군 이름 “드루킹”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인터넷 공론장에서 저마다의 지방자치 총독이다. “기술과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매혹적인 선동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10]”는 타르드의 지적은 여전히 설득력이 있다. 민주주의의 이념과 전자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구조의 복잡화와 고도화가 여론 민주주의의 새로운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공권력에 맞서 폭력이 행사된 경우처럼 인터넷을 통한 암시에서 비롯되었고, 외적 지도 없이 자발적으로 모인 ‘촛불공중’은 광장에 모여 육체적인 접촉을 갖고 교감하는 과정에서 부정응자와 선동가들, 분파나 정파의 지도자들에 의해 군중의 성격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군중과 공중은 혼돈될 수 없는 개념이지만 공중과 군중이 혼재하는 형태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이 타르트가 말한 ‘공중의 흑으로서의 군중’, 바로 공중의 위험성이다.



그림 2. 2008년 6월 2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수입 반대 시위 도중 한 전경이 시위대에게 폭행당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3. 의사사건과 여론

“황해도 신천에 가면 전쟁박물관이 있다. 6·25전쟁 때 주민 3만5000명이 총칼에 죽고, 불에 타고 맞아 죽었다. 그곳에는 그들의 유품과 사진, 머리칼, 고문도구, 갖가지 흉기들이 전시되어 있다. 나는 몇 번이고 거기에 갈 때마다 욕지기가 났다. ‘저 승냥이 같은 미제 놈들이 아무 죄도 없는 인민들을 애, 어른, 늙은이 가리지 않고 이렇게 무참히 때려죽이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해설을 하는 여성 안내원 동무의 눈이 번들거렸다. 무섭다. 곱게 한복 차려입고 단정한 조선의 여인 같았는데 수십 년이 끔찍한 현장을 수없이 되뇌다 보니 표정에서 귀기(鬼氣)가 흘렀다. 사람들이 ‘미 제국주의의 만행’을 증오하도록 절절히 설득해야 하니 자신도 모르게 지리되었다. 황석영의 소설 <손님>을 읽어보면 신천군 주민들을 그렇게 학살한 건 미군이 아니고, 같은 신천군 일부 지주들과 개신교인들인 걸로 나온다. 인천상륙작전 뒤

연합군이 북상하면서 만들어진 일시적인 치안 부재 속에서 그동안 땅 뺏기고 종교박해 받았던 일부 기독교층에서 저지른 일이었다는 거다. 북 당국도 뻔히 이걸 알면서도 주민들에게 반미의식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미군 만행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내가 북에 갔을 때 그쪽 사람에게 진실이 무어나고 넌지시 물었더니 낮빛이 바뀌면서 정색을 하고는, 황 선생이 그런 소리 하고 다니면 안 된다며 말을 돌렸다[13].”

다니엘 부어스틴이 처음 사용한 ‘의사사건(pseudo-event)’이란 용어는 오늘날 많은 언론학 연구자들에게 인용되고 있다. ‘의사사건’이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공하고 조작한 이미지를 진짜 현실처럼 보여주는 것을 지칭한다[14]. 부어스틴의 의사사건 개념은 월터 리프만이 그의 저서 『여론』(1922)에서 처음 사용한 ‘의사환경(pseudo-environment)’이라는 용어를 발전시킨 개념이다. 부어스틴은 홍보전문가가 제안한 흥미로운 사례를 들어 다음과 같이 의사사건을 설명한다.

“호텔 소유주는 홍보전문가에게 호텔 명성을 높이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부탁한다. 호텔의 명성과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초청된 PR전문가는 호텔 개장 3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열 것을 제안한다. 이에 호텔은 각계의 지역 유지들로 기념행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회 형식의 거창한 이벤트를 기획한다. 이 연회가 열리는 동안 기자들이 초청되고 여기 저기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다. 이 행사는 언론에 널리 보도된다.”

부어스틴에 따르면 이런 축하행사가 바로 의사사건이다. 이러한 형태의 기념행사는 다소간 공중을 오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그 호텔이 정말로 지역 사회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그 호텔은 그 지역 유지들로 기념행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지 말았어야 했고, 반면에 그 호텔이 진정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호텔은 홍보전문가에 의해 기획된 그런 거창한 행사를 치를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기념행사는 요란하

게 진행되었고, 기념행사는 그 자체로 그 호텔이 지역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다[14]. 의사사건이 그 호텔에 그럴듯한 명성을 부여한 것이다. 의사사건은 꾸며진 사건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가짜는 아니다. 이것은 의사(擬似)라는 표현처럼 실제와 비슷한 '어떤 일'이나 '어떤 것'에 가깝다. 그리스어에서 온 접두어 pseudo도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부어스틴은 의사사건의 특징과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설명한다.

- ① 의사사건은 자연발생적이 아니며 누군가가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야 일어난다. 열차 사고나 지진은 가짜가 아니지만 인터뷰는 의사사건이다.
- ② 의사사건은 주로 언론에 보도되거나 반복 시행되어야 할 다급한 목적을 위해 실행된다. 그러므로 의사사건은 미디어에 보도되기에 가장 편리한 시기와 장소에서 일어나도록 준비된다. 여기서 “이게 진짜냐?”라는 질문보다 “이것이 뉴스가치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 의사사건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언론에서 다뤘느냐는 것으로 평가된다.
- ③ 의사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진짜 현실은 대개 모호하다. 의사사건은 바로 이런 진짜 현실의 모호함에서 출발한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의사사건에 관한 의문은 새로운 차원의 문제를 낳는다.
- ④ 의사사건은 '자기만족적 예언'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호텔 개관 30주년 행사는 그 호텔이 지역사회에 우뚝 선 존재라는 의도를 실현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14].

의사사건의 문제는 보도된 사실과 실제적 진실 사이에서 혼란을 야기한다는 데 있다. 조작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현실은 사라지고 매개된 이미지, 즉 만들어진 현실이 인식의 기초가 돼 '진짜' 현실은 과장되거나 축소된다. 오늘날 전 영역의 미디어는 의사사건에 의존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기사화되기 위한 PR활

동이 극심해질수록 미디어의 의사사건 의존도는 더욱 커진다. 특히 선거 캠페인은 의사사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보도는 그걸 반영할 수밖에 없다. 모든 사회운동도 의사사건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언론에 보도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017년 10월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SNS에서 정황 증거를 고백하는 형식으로 시작한 '미투 캠페인'은 의사사건의 연출 방식에 크게 의존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알리사 밀라노가 캠페인을 제안한지 24시간 만에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지를 표명했을 정도로 과급력은 대단했고, 캠페인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의사사건은 '예측성'의 장점을 이용해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고, 흥미로운 형태로 제시하기 때문에 대중에게 크게 어필된다.

앞서 의사사건의 특징에서 부어스틴이 언급한 바처럼 인터뷰는 언론이 개발하고 주권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의사사건이다. “누구를 인터뷰해서 뉴스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건 전적으로 언론이 결정한다. 인터뷰는 언론의 상업성과 언론의 권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한다. 유명인의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는 것도 의사사건의 전형이다. 부어스틴은 영웅은 스스로 자신을 만들지만 유명인사는 미디어에 의해 창조된다고 말한다. 영웅은 큰 인물이고 유명인사는 큰 이름이다. 유명인은 단지 유명하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사건의 취재원은 좋은 이미지 또는 의도된 이미지를 부각하거나 발표하기 위해 교묘하게 미디어를 활용하고,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디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들을 이용한다. 미디어는 의사사건을 통해 대중에게 쟁점을 인지시키고 중요한 사안이 무엇인지 알려주며, 대중의 의견이 가시화되도록 상호 의사 교환이 이뤄질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한다. 댓글이라는 형식을 갖는 대부분의 악성 여론은 그 안에서 창궐한다.

미디어가 공론장을 조성해 속의를 끌어내는 순기능을 외면하고, 외부의 압력, 자체의 불안정성 등으로 특정 입장과 이해관계를 대변하게 되면, “특정 의견에 유리한 편견을 갖는 하는 조정의 효과, 특정 쟁점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의제설정의 효과, 특정 쟁점을 상징

로 제시하는 효과[15]" 등이 만들어 진다. 엘리자베스 노엘-노이만은 이를 '공명(consonance)'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여기서 공명은 여러 신문, TV, 인터넷 매체들이 함께 생산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상호 인용하는 쟁점이나 사건의 '통일된 이미지'를 가리킨다[16]. 이렇게 만들어진 '통일된 이미지'가 바로 '여론분위기'이다. '공명' 상태에서 수용자들은 메시지를 선택하기 어려우며, 매체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바라보기 쉽다.

오늘날의 유능한 기자는 자연재해나 암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뉴스거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다. 대중은 언론의 소유주와 경영자, 그리고 저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사안들 속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현실의 조각들을 주워 모은다. 미디어의 존립 형태의 여하를 떠나 미디어가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경우, 정치적·경제적 권력의 통제에 따라 형성되는 여론의 질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 묘사가 세월호 피해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시각이 되었음은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17]. 미디어가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해 보도하느냐에 따라 또는 어떤 사안에 대해 가중치를 두고 보도하느냐에 따라 수용자의 인식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201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인터넷 댓글 조작과 2018년 드루킹 사건이 방증하듯이 우리는 다양하고 방대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빛의 속도로 '여론 조작'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여론의 존재론적 취약성은 의견이 다른 구성원 상호간에 분열과 증오를 야기하는 충분조건이기도 한다.

III. 본 론

제주도 예멘 난민을 수용을 거부하는 것이 당장의 안전을 담보하고, 경제에 이익이 될지 모르나 인권 차원과는 분명히 반하는 측면이 있다. 관점과 가치가 다르면 균열이 만들어지고 불안정이 초래된다. 예멘 난민의 수용을 반대하는 여론 속에는 인종과 문화에 대한 원초적인 편견이 내재되어 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감성이

나 종교, 정체성의 차이에서 기인하고, 부차적으로는 이기적인 욕망의 차원에서 발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는 일은 몹시 불확실하고 더딜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는 이 문제를 여론의 흐름이 아닌 보편적인 가치와 근원적인 원리 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본 장에서는 그러한 가치와 원리로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 개념을 그의 사상의 기저가 되는 성경 텍스트와 결부시켜 검토하고, 예멘 난민 수용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1.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 개념

중세의 신학적 토대를 마련하고 중세철학과 사상사에 복음주의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세계관을 발전시킨 아우구스티누스는 4세기 후반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정신과 문화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기독교가 세속과 분리된 종교의 차원에서 시대의 정치사상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아우구스티누스의 역할과 공헌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철학의 한계를 사랑의 원리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이즘, 플로티누스에서는 '사랑' 개념에 대한 탐색을 찾아보기 힘들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스토아철학의 유물론적이고 범신론적인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거부한다. 성서의 원리에 기초한 그의 사랑 개념은 이전의 이성적 지성사와는 다른 새로운 인식론을 제공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성은 진리를 발견하기에는 너무나도 취약해서 이성은 마치 사랑의 부분집합처럼 취급된다. 그에게서 존재와 삶의 근원적 원리는 오직 사랑을 통해서 발견되고 양육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끊임없이 사고의 전향을 거듭한 철학자이다. 회심을 통해 기독교에 귀의하기까지 그는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명쾌한 사상을 찾아 끊임없이 방황했다. 그는 명예욕과 성욕과 출세욕에 시달려야 했던 우리 각자의 모습과 너무도 닮은 '가슴 따뜻한 보통사람'이었다. 그는 인간적인 부족함과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살았으며, 인간적인 욕구에 끊임없이 괴로워했던 사람이다. 한때 마니교에 심취했었고, 플로티누스와 아카데미아파의 회의론을 체험했다. 불안과 절

망에 시달리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판단을 중지하라는 회의주의에 잠시 설득되기도 했으나, ‘진리 같은 것’에 만족하고 사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18]. 회의론자들에게 진리란 지혜와 동일시될 수 있는 것으로 꼭 그것을 얻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놀랍게도 회의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확실한 사실이 엄연히 존재함을 발견한다. 의심하고 있는 자신의 존재가 바로 그것이다. 그는 “내가 만일 오류에 빠진다면, 나는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어떤 사실에 대해 잘못 알거나 악령에 속아 넘어갈지라도 그렇게 의심하고 속는 나 자신만은 존재한다는 것이다[19]. 이것이 그가 발견한 내면의 진리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사람들 각자의 이성이 인식하는 여러 ‘진리들’은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되는 ‘진리 그 자체’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 마치 감각적인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빛이 필요한 것처럼, 이성이 불변하는 인식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적인 빛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성은 인간의 영혼이 지닌 고유한 능력이기도 하나 이성만으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신의 조명, 신의 베품, 신의 은총을 통해 인간은 진리에 이를 수 있다[19]. 이 진리는 로고스인 그리스도를 뜻하고 그 본질은 사랑이다. 뱍코크에 의하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 개념은 일종의 운동(motus quidam / movement)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 운동은 항상 어떤 대상을 향하고 있다. 결국, 무엇을 사랑해야만 하는지를 묻는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움직여야 할 올바른 방향이 어디인지를 묻는 것과 같다[18]. 따라서 사랑은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 평가될 수 있다.

2. 초월적 사랑

아우구스티누스는 영혼이 그 자신보다 열등한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경우, 그것은 수치스러운 사랑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물질에 대한 사랑이 이에 해당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

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디모데전서 6:10)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악의 근원을 몰욕, 성욕, 분노, 편애, 인색, 편파심 등을 일컫는 쿠피디타스(cupiditas)로 보았다. 쿠피디타스에 반대하는 것이 영원한 것에 대한 사랑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이 영원한 것을 사랑하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이 불행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인간 스스로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18].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분별한 인간의 사랑은 상실을 수반하고 영혼의 질병으로 나타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로마서 1:28-31)

그러나 영원하지 않은 물질에 대한 사랑이 선한 목적이면 그 차이는 구분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물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향유(frui)라고 부르고, 그 외의 수단으로 사물을 사랑하는 것을 사용(uti)이라고 정의했다[19].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본성이 사랑을 향하고 있고, 그 경향이 가치의 질서를 따른다면 질서에 적합한 사랑으로써 사물을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15-17)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모든 사물은 인간의 신체를 위함이고, 신체는 인간의 영혼을 위함이고, 영혼은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18]. 신의 사랑을 알고, 신의 사랑이 실현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웃을 질서 있게 사랑한다면, 그 안에서 사랑의 계명이 완성된다고 보았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34)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 전체가 인간을 향한 신의 사랑이고, 이 사랑은 부분적 인식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관념이 된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인간이란 ‘육체를 사용하는 이성적인 영혼’이다. 따라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혼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영혼은 신성하고 숭고한 창조물이며 천상의 또는 초신성의 힘을 지닌 어떤 것[18]”인데, 그 영혼 속에 내재된 힘이 바로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기록된 바처럼 영적인 하나님을 이해하는 핵심 역시 사랑이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사랑은 에로스 또는 아가페로 설명되지 않는다. ‘사랑’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언어적 수사가 현실에 정확하게 대응되기 어렵겠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개념은 플라톤의 세속적 탈현실, 탈육체의 개념과는 다르다. 그는 사랑의 감정을 영구법의 ‘인간질서의 원리’로 파악했다. 일반적인 사랑의 감정은 육구의 관점에서 출발하고, 개인이 처한 실존적 내면세계에 대한 통찰로서 ‘육구’는 두려움의 부재를 향한 자기충족의 결여로서 사랑의 타락한 형태이다[20]. 진정한 질서의 근본으로서의 사랑은 규범과 법을 초월해 새로운 질서로 나아간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의 내용은 이를 잘 반증하고 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

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간음한 여인에 대해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한 예수의 선언은 유대의 율법, 즉 실정법의 이념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인간의 법적 판단은 언제나 올바름을 향한 사다리를 타고 오르지만 결국 몇 칸 오르거나 되면 인간은 스스로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의 한계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지점에 이른다. 인간의 법적 판단은 언제나 자기충족의 결여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0]. ‘고통과 비참함’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이해는 사랑 원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죄를 지고 죽음 앞에 놓인 여인의 고통과 비참함, 돌을 들고 치려는 분노한 군중, 그 사이에서 율법을 초월한 예수의 사랑은 자비와 정의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3. 정의의 언어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 잠언 21장 13절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 개념은 초월성으로서 선(善)이고, 그것이 실행되는 단계에서 정의의 문제와 연관된다. 왜냐하면, 사랑은 ‘절대적 비대칭성’ 즉, 불공정, 불평등, 불균형을 전제로 일을 시작하기 때문이다[20]. 사

랑과 정의는 시니피에와 시니피앙의 관계와 같다. 정의가 시니피앙이라면 사랑은 언제나 원천으로서의 시니피에이다. 삶의 고통과 비참함의 지근에서 정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현실의 규범들을 명시적으로 나열할 것을 요청한다. 정의는 현실 문제를 조화롭고 하고, 그 균형 위에 법과 권리로 연합된 시민을 생성하며 국가의 질서를 확립한다. 정의에 대한 공정한 규범과 실행을 전제하지 않는 모든 정치권력은 강도떼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지다[21]. 그에 따르면, 정의야말로 국가를 유지하는 가장 본질적인 덕성이며, 이 덕성이야말로 시민을 성장시킬 수 있는 요체가 된다. 그에게서 시민은 단순히 다수의 사람이 모인 군중의 상태가 아니라, 법과 권리에 관한 보편적 인식과 공동의 이해관계에 의해 연합된 합리적인 집단이다[21].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정의가 인정되지 않는 집단은 국민으로 호칭될 수 없는 잡동사니 군중에 불과하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제주도 에멘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 또는 경제적 침탈자로 인식하고 거부하는 것은 사랑과 정의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결여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원인을 자기애에서 비롯된 탐욕에서 찾는다. 자기애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으로 회귀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 제국 말기, 고트족의 외침으로 외적·내적인 어려움과 혼란에 처했을 때,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확고한 신념으로 기독교의 참된 정의의 가능성과 현실에서의 유용성을 설득력 있게 논증한다. 그는 인간이 행복하고자 하면 세상이 평화로워야 하고, 평화롭기 위해서는 질서와 조화가 있어야 하며, 질서와 조화는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때 만들어진다고 주장한다[21]. 각각의 기능이 최상의 효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질서와 조화의 핵심에 ‘정의’가 내재해야 하며, 그것이 견고하게 유지될 때 전쟁의 위험도 극복할 수 있는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정의는 기독교가 세상에서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원천적 가치이다. 정의를 추구하는 사회일수록 감정은 성숙하고 행동은 합리적이며, 그러한 사회일수록 공감과 연민에 의존한다[20]. 사랑 없이 나열된

정의의 언어들이 고통과 상처를 치유할 수 없음을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목격한 바 있다.

소피스트들과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현대철학까지 모든 철학의 역사적 과제인 보편적 진리에 대한 논쟁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는 쉽게 종지부가 찍힌다. 그가 제시한 사랑의 원리야말로 생명의 시작부터 죽음까지 인간 전체—사회적, 윤리적, 정치적 삶을 넘어 세계적 삶의 영역을 포함하는—를 설명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IV. 결론 및 제언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나 하더라” (요한복음 19:37-38)

당시 유대 총독은 유대교의 대제사장 임면권과 유대인에 대한 사형 집행권, 유대인들의 정치 의결기구이자 법원인 ‘산 헤드린 공회’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일까? 대제국의 지적인 명망가 빌라도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서른세 살의 젊은 예수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지 않았다.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판단도 내리지 말아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분노한 군중의 여론을 의식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천 여 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 수십억 인구의 신앙고백으로 소환되는 빌라도의 비극은 이처럼 여론에서 시작되었다.

필자는 2장 문헌연구를 통해 여론의 태생적이고 본성적인 취약성을 살펴보았다. 여론이 민주적 이론의 핵심이며 민주정치의 작동원리로 기능함에도 불구하고 여

론은 그 자신 다중적이고 모호한 특질들로 인해 여전히 논쟁을 만들어 내고 있다. 많은 논란 속에서 분명한 사실 하나는 여론은 한 개인의 사적인 대화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론을 주도하고 구성하는 것은 결국 미디어이다. 미디어는 일상적인 대화의 주제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동시다발적인 대화가 생성되며, 동시다발적인 대화는 마침내 여론이 된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여론을 뜻을 확정한다. 제주도의 예멘 난민 수용의 반대 여론 역시 하나의 의견으로 개진되었고, 언론은 난민 이슈를 확산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인종, 이질적인 문화와 종교, 인성 문제 더 나아가 테러리스트, 가짜난민 신청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시각은 난민 수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구성했고,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여론조사는 반대 여론의 우세를 확정지었다. 그리고 그 수적 우세는 정치적 결정의 방향을 지시하는 화살표로 보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여론은 개개인 의견의 다양한 빛깔과 질적 무게를 헤아리는 것으로 그 크기가 더하기 보다는 양적인 수의 합으로 그 힘을 키우려 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수는 때때로 이성과 논리, 사실과 진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키려 한다. “예” 또는 “아니오”로 분명히 구분할 수 없는 모든 형태의 문제와 정보들은 소통 과정에서 왜곡되기 쉽다. 왜곡이 사람 마음의 중요한 일부인 것처럼 미디어 역시 여론 역시 그러하다. 만일 여론이 높은 식견과 광대한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이성의 치열한 각축을 통해 보편타당하고 정의로운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모든 일은 잘 풀릴 것이다. 그러나 예멘 난민 수용 문제에서 드러난 경우처럼 여론은 그러한 가치와 갈등관계인 경우가 많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국가의 위대한 결정은 여론의 흐름에 따라 태평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링컨이 노예해방을 위해 힘을 무릅, 노예해방과 전쟁에 반대하는 백인들의 여론을 의식한 내각은 총사퇴로 링컨을 위협했다. 링컨은 각료들에게 하루의 말미를 달라고 요청하고 고뇌의 하루를 보낸 후,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긴다. “자유와 노예가 함께 하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결국 내각은 링컨의 뜻을 받아 들였고, 링컨과 링

컨 내각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어렵고 위대한 일을 해냈다. 한사람 또는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정치적 결정은 언제나 보편적인 공통의 원리와 숭고한 가치 그 위에서 사유하고 행위해야 한다. 아무리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라 할지라도 참혹하고 비참하고 애절한 일들은 일어나기 마련이며,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창한 공감 속에 내재된 사랑의 능력은 언제나 필요하다. 모든 사실을 왜곡 없이 구성하고 완전체로 전달할 수 있는 ‘전능’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원리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이끌어내는 수용 가능한 방식과 그렇지 못한 방식을 구분하는 일조차 분간하기 어려워진다.

가까운 과거에 우리 역시 동족상잔의 참혹한 전쟁을 겪었고, 예멘인들과 다를 바 없는 고통과 비참함을 경험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관용하는 것이 불관용하는 것보다 악이 크지 않다”고 했다. 많은 예멘인들이 종교와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고,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본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난민의 상태에 놓여있다. 그들은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예멘 난민 수용의 문제는 그들의 인성 또는 문화와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난민 수용은 인권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권은 또한 정의의 문제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정의의 실현은 사랑의 원리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랑이 정의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사랑의 발현은 수많은 다툼과 혼돈, 아우성이 종료되는 지점을 보여준다. 사랑은 무수한 ‘다름’을 넘어서 그들과 우리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불변적인 ‘같음’, 그 편에 서는 것이다. 그 자리에 보석처럼 빛나는 영원불멸의 빛이 반짝인다.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다. 타인을 돕는 손, 가난한 자에게 달려가는 발, 불행을 바라보는 눈, 한숨과 슬픔을 듣는 귀를 가진 것이 사랑의 모습이다.” -아우구스티누스

참 고 문 헌

[1] <http://www.realmeter.net/>
 [2] <http://nancen.org/1748>
 [3]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07327>
 [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mid=shm&sid1=102&oid=018&aid=0004148934>
 [5] 이승희, 임소혜, “트위터의 매체간 의제설정-TV 토론 방송과 트위터의 여론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호, p.140, 2014.
 [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28599&cid=42140&categoryId=42140>
 [7] https://book.naver.com/bookdb/publisher_review.nhn?bid=8658138
 [8] 윌터 리프먼, 이충훈 역, *여론, 가치*, p.12, 2015.
 [9] 이상길, “공론장의 사회적 구성,” 한국언론학보, 제47권, 제1호, pp.15-16, 2003.
 [10] 가브리엘 타르드, 이상률 역, *여론과 군중*, 이책, pp.72-252, 2015.
 [11] G. Tarde, *Les lois sociales*, Paris, Institut Synthelabo, p.55, 1999.
 [12] 귀스타브 르 봉, 민영홍·강영숙 옮김, *군중의 심리*, 학문과 사상사, pp.13-14, 1988.
 [1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3578.html#csidx4a02c4c490586d3bcae274d050295e9
 [14] 다니엘 부어스틴, 정태철 역, *이미지와 환상*, 사계절, pp.31-34, 2004.
 [1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28599&cid=42140&categoryId=42140>
 [16] 가브리엘 와이만, 김용호 역, *매체의 현실 구성론*, 커뮤니케이션북스, pp.45-46, 2003.
 [17] 김병진, 이상은, 양종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보도 편향성에 관한 연구 - MBC와 JTBC의 저녁 종합뉴스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

17권, 제11호, p.557, 2017.

[18] 김진아, “아우구스티누스 행복론의 철학상당적 함의: 사랑의 윤리학을 중심으로,” 법한철학논문집, 제85집, pp.69-77, 2017.
 [19] 박승찬, “아우구스티누스 사상 안에 나타난 행복과 치유,” 법한철학논문집, 제79집, pp.221-236, 2015.
 [20] 김연미, “St. 아우구스티누스의 법사상: 사랑의 원리를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제21권, 제1호, pp.173-191, 2018.
 [21] 아우구스티누스, 조호연 역, *하나님의 도성*, CH북스, pp.226-939, 2017.

저 자 소 개

이 성 욱(Sung Wook Lee)

정희원



- 2000년 6월 : 파리국립1대학교 판테온-소르본 영상영화학과(학사)
- 2003년 6월 : 파리국립1대학교 판테온-소르본 영상영화학과(석사)

- 2011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박사수료)
- 2006년 2월 : 한동대학교 언론정보문화학부 교수
- 2006년 3월 ~ 현재 : 한라대학교 광고영상미디어학과 교수

<관심분야> : 매체론, 영상미학, 영상 연출론, 시나리오